

2015년 2월 1일 주일설교  
워싱턴 한인교회 황의경목사

분별의 영 (The Spirit of Discernment)  
데살로니가전서 5:21-24

Christopher Morse 라는 신학자는 요한일서 4 장 1 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근거로 *Not Every Spirit*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지도 분별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믿지 않는지,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시험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반문할 수 밖에 없다고 Morse 박사는 말합니다. 이렇듯 지금껏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문화 속에 전통과 예식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1 장 14 절의 말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지난 몇 달동안 새벽기도에서 예언서를 묵상했는데, 그 중 스가랴선지자가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을 거룩한 땅에 와서도 계속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때 곡식의 양을 잴 때 썼던, 그리고 메소포타니아 지역에선 여신을 숭배하는 방 (cult room)으로 명칭되었던 “뒤주”안에 그들이 섬기던 여신을 가두어 바빌로니아 땅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중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대 바빌론, 이집트, 앗시리아 국가들이 섬기던 신들 중 가장 강하고 중요했던 신들은 바알과 Ishtar 여신이었습니다. 이 Ishtar 여신은 전쟁, 사랑, 문란한 성행위,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신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는 부활절의 영어 표현인 Easter 가 바로 Ishtar, 즉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Ishtar 가 세월이 흘러 유럽쪽으로 퍼지면서 숭배되었을때는 “Eastre”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Eastre”가 “Easter”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부활절의 마스코트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상징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토끼와 달걀입니다. 부활절 때가 되면 주일학교는 Egg Hunting 을 하고 어른들은 달걀을 삶고 색깔을 칠해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토끼와 달걀이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토끼와 달갈이 Ishtar 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Ishtar 의 신화에 따르면 하늘에서 큰 달갈이 하나 떨어졌고, 그 큰 달갈을 깨고 나타난 신이 Ishtar 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여신숭배와 함께 달갈도 숭배하는 여러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Ishtar 는 다산 의 상징이기도한데, 동물 중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토끼”입니다.

Easter 의 단어에 대한 진실을 아는 많은 교회들은 부활절을 더이상 “Easter Sunday”라고 부르지 않고, “Resurrection Day” 혹은 “Risen Sunday”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토끼와 달갈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이유가 봄과 새영을 뜻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뿐, 많은 사람들은 토끼와 달갈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문화이고, 내려오는 전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보다, 기독교 역사와 교회 문화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베어 있는 잘못된 문화와 전통들, 특히 우상숭배의 잔해를 분간하여 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종교의 문화와 전통, 풍습 등이 접목되기 때문에 종교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데전 5:21-22)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갖고 있던 습관이나 생각을 돌아보고 바른지 그른지 분별하여 고치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화와 전통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들을 시험하고 분간하고, 바로 잡으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은 후에도 그것을 어떻게 삶속에서 실천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더 큰 숙제이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것을 그릇되게 보고, 믿고 믿지 않는다고 분간하는 것을 차별한다고, 속이 좁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3-24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교회 문화의 많은 부분을 분별하고 구분하여 지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든 세대가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분하여 지키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분별하며 실천하다면,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속회자료>

분별의 영 (The Spirit of Discernment)

데살로니가전서 5:21-24

찬 송 401 장 (통 457)

기 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1-24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10 분)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것을 믿지 않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Morse 박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니까?
- (4)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그러나 분간하였을 때 ‘거룩하고 좋은 것’이 아닌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갓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하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기 도

- (1) “여러분을 부리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도하십시오. .
- (2) 와싱턴한인교회 모든 세대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두고 매일 한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송헌금 366 장 (통 485)

주기도문